

■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각계 의견

“종지 봉대...해외사찰·총무원 협조 필요”

△원영스님(전 미주승가회장, 미국 뉴저지 보리사 주지)= 해외 교구 설립에 관한 업무를 총무부에서 관장한다고 명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책임부서를 명시한 것은 의의가 크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있어 회계, 인사, 회원 관리 등의 독립성과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무소의 독립성이 크면 종단의 책임도 짊어질 것이고, 독립성이 적으면 종단의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러나 종단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로서의 특성도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조계종단이므로 조계종의 종지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교구재적승의 자격을 명시한 제8조2항의 ‘5년 이상 상주’는 ‘2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게 좋다. 지금 해외사찰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상좌가 없다는 것이다. 동포 2세가 해외에 있는 사찰에서 출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에서 출가하는 사람의 수제는 해외교구 공동으로 하거나 재가자 가운데 보살승이라 하여 국제포교사와 연계되는 지위를 주어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11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25대 주요 과제의 하나가 바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다. 조계종은 총무원은 지난 5월14일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6월30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 후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을 통해 총무부에 접수된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별로 법안설립에 대한 법이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의 규칙이나 경향을 바탕으로 사찰을 등록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무부장 스님이 해외교구 본사주지를 겸직할 경우 지속적으로 종적을 반영하기 어렵다. 상임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한 구성은 해외사찰 주지 또는 운영자 가운데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심의, 의결뿐 아니라 해외사찰운영자로서 한국불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원영스님 휘광스님 선각스님

교구재적승 자격 2년 이상으로 완화 해외거주 스님 상임위 참여범위 확대 재정상태 ‘열악’ 분담금 재고 등 주장

총무부 “한국불교 세계화 발전방안 모색”

△선각스님(미국 중부승가회 부회장, 애틀랜타 불국사 주지)= 법을 만든 취지를 “총무원이 어떻게 하면 해외포교를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대승불교와 조계종의 정통성을 잃지 않고 삼보정체가 유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해외에 있는 사찰들이 후계구도가 이어지는데 있어서 총무원은 어떤 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외사찰과 총무원이 상호 도와주는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해외거주 스님이 80%는 참여해야 한다. 총무부장 스님이 당연직 교구본사 주지 소임을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동부, 중부, 서부 세 곳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해외포교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해외포교부’와 같은 부서를 두어 해외사찰의 민원을 처리하는 게 좋다. 해외 사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다. 따라서 분담금을 걷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휘광스님(뉴욕사원연합회 회장, 뉴욕 불광선원 주지)= 황무지와 같은 해외에서 한국불교 포교를 위해 개척해 가는 사찰들을 종단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마련하

는데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역별 대표사무소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만, 크게 대륙별로 구분하고, 다시 국가별, 소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교구의 사찰등록은 국가별, 지역

△이종권 국제포교사= 삼보정체의 보호는 법률적 실효성에 의심의 여지가 많은 종단등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총무원이 요구하는 종단등록 서류는 현황과 정도도의 의미가 있을 뿐, 재산과 관련한 법적 효과는 없다. 개별사찰에 있어 종단등록은 해당사찰이 조계종 사찰임을 선언하는 의미이다. 해외사찰의 고충 및 민원해결센터의 역할을 종단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조계종 스님만이 조계종 스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종단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김복석 변호사= 종헌 94조 3항의 흥법원 관련 규정과 새로 설치하려는 (해외)교구본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총무부장의 해외교구본사 주지 겸직은 종헌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외교구본사도 교구본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외교구 본사 주지 추천과 기타 중법령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른 본사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한편 총무원 총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조계종 총무부가 지난 6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쟁썬선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김형주 기자 cooljo@ibulgyo.com

“韓中교류 증진 위해 노력” 공감대

쟁썬선 주한 중국대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쟁썬선(張鑫森)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쟁썬선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칭하이성 지진 당시 한국 불교계가 도움을 줘 피해지역을 복구하는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이 다년간(多年間) 한중불교 교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셨다. 하반기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사 부임을 축하한 뒤 “앞으로 한중 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임 기간 동안 한중 교류의 불꽃이 활짝 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 배석한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동아시아 불교에 관심이 많다”면서 “특히 중국과의 불교교류를 높이 평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한중일 삼국이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에, 현대사회에서도 한중일 삼

국의 우호교류가 증진되고, 동북아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쟁썬선 대사는 부임이후 2차례나 경주 불국사를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한국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쟁썬선 주한 중국대사는 “총무원장 스님을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다”고 초청의사를 밝혔고, 총무원장 스님은 초청에 응하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현장에서

해소돼야 할 ‘이주민’과 ‘주민’ 사이

“절반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 노동자 등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로 정리된 일이 없었는데 작지만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앞으로 불교계 역할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30일 열린 불교계 이주민 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던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실무자의 평가이다. 이날 토론회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 든 오늘날,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자리였다. 특히 현장에서 이주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과 마주하며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원 사업 사례를 발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주민을 바라보는 불교계의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불교계에서 접근하는 이주민의 경우,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불교와 인연이

깊은 국가에서 온 이들로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니면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사회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은 어느덧 100만을 넘어서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들을 포교의 대상이나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그들을 ‘이주민’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주민’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가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性寂堂 道覺宗師 追慕齋

조주스님이, “죽은 사람 하나를 무수한 산 사람들이 보내는구나.”고 했다가, 다시 고쳐서,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내는구나.”고 했습니다.

심적당 도각 종사는 우리 모두의 사제, 우리 모두의 사형, 우리 모두의 도반이었습니다. 일찍이 해인사에 출가하여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였고,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였으며, 뒤늦게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바 있습니다. 종단개혁에는 앞장서 위법망구하였고, 불의의 큰 부상으로 내내 병고와 싸우면서도 비구로서의 품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여름, 도각 종사가 시멸하였을 때, 우리 문도와 도반들은 도각 종사를 추모하며, 爲一切法與衆生 일체법과 만 생명 위해 爲可爲於可爲時 해야할 만한 일을 할 만한 때에 하였으니 復焉敢膠願手踏 밟아온 길 무엇하러 다시 돌아볼 손가 好住於殺活劍上 살활자재 칼날에서 잘 머물렀노라 고 애도하였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도각 종사를 훌훌 보내드리는 정성으로,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들을 훌훌 떨쳐 버리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상좌와 문도, 도반들이 추모의 정을 모아 돌아오는 2554(2010)년 7월 23일 해인사에서 도각 종사 1주기 추모재를 여법하게 봉행하고 종사의 유골을 가야산 일원에 산골해드리고자 합니다.

불기2554(2010)년 7월

해인사 원당암 해암문도회, 상좌(보철, 보승), 해인사승가대학 제25회 졸업생 동문, 중앙승가대학교 제9회 졸업생 동문

